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아시아 로잔대회 은혜 중 폐막

### -이중윤 목사의장으로 추대-

복음을 위한 동반자(Partnership in the Gospel)라는 주제로 지난 8월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아시아 20개국 대표 125명이 참가한 ALCOE V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 이중윤 목사가 집례한 성찬식을 끝으로 은혜 중에 폐막되었다.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종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는 나라,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 미신과 무지로 휩싸인 나라, 갈등과 죄로 오염된 나라들로 채워진 아시아를 어떻게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각 나라에서 초청 받은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나흘동안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하여 강연과 토론 예배와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 로잔위원회와 서울교회 김치위원회가 주관 부서가 되어 대회 모든 진행을 유감 없이 훌륭하게 치루었다는 평을 받으면서 성공적 대회였다고 참석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칭찬과 부러움을 나타냈다. 특별히 민박봉사에 참여했거나 대회장 또는 식당에서 봉사한 이들, 영접 안내한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감탄케 했다.

이번 대회에서 이중윤 목사는 임기 4년의 의장으로 선출됨으로 명실공히 국제적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목사는 국제 로잔 위원회 집행위원 5명중 한 사람으로 섬긴 바 있다.

###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9월2일(월) 오후2시-

국내 목회자들의 영적 갱신과 성장을 목표로 우리교회가 10년간 계속하여 연2회 개강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22학기 과정이 내일 9월2일(월) 오후 2시 본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강된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매 학기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연인원이 일 만 명에 이를 만큼 국내 목회자들의 미진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준비하여 전국 목회자들의 배우고 갱신하려는 열의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학기는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개강이 되며 1교시는 이중윤 목사의 시편 강해가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 이어지며 2교시는 주제별로 10분의 강사가 강의를 맡게 된다. 특히 이번 학기 중 3시간을 할애하여 오는 겨울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게 되는 3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국가관을 비롯한 여러 것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에도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본 교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봉사의 손길도 필요하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 유아부 전도 나선다

-전도지 준비하여 8월말부터 시작-

우리교회 유아부(부장 이관규 장로)는 현재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유아부가 운영되고 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도활동을 위해 눈 높이에 맞는 전도지(팸플렛)을 준비하여 교회인근의 병 · 의원, 어린이집,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에 기도로 준비된 전도대를 파송하여 임산부와 갓난아기를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펴기로 한 것이다.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한다.

### 찬양대 세미나 개최

9월6일(금) 오후 7:30 웨스트민스터 홀

찬양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찬양대원들이 소임을 더욱 은혜 중에 감당토록 돕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오는 9월6일(금)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백효죽 교수(아세아 연합신학 대학교수, 서울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초청되어 은혜롭고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모든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대장, 파트장들은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모든 찬양대원들도 참석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 2002 열린 바자회 개최

10월9일(수) - 11일(금) 3일간  
불우이웃 돕기와 헌당을 위해

우리 교회가 매년 주제를 갖고 개최하는 바자회의 일정이 발표되었다. 바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박철훈 장로)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바자회 역시 성도와 이웃 주민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열린 바자회로 준비되며 주제는 불우이웃 돕기와 헌당으로 정해져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불우이웃 돕기와 건축현금으로 드려진다.

바자회 준비위원회는 모든 성도들이 향유가 든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인처럼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자신을 바치는 바자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하였다.

### 제2회 새가족부 홈커밍데이

9월7일(토) 오후3시 만나 홀

새가족부에서 두 번째 홈커밍 데이를 갖는다. 9월7일(토) 오후 3시 8층 만나 홀에서 개최되며 2001년 6월 30일 이후 등록한 교인을 초청하여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꾼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교구 및 다락방 선교회 및 전도회 등 각 부서에 소속을 확인하게 된다. 이날 홈커밍 데이에는 당회원과 선교회 및 전도회 교구간사, 성경공부반 임원들이 초청 받아 자리를 함께 하게 된다. 2001년 6월30일 이후 등록된 모든 새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제7회 작은 순례자의 합창

-9월14일(토) 초등부 찬양대 발표회-

초등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오는 9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뮤지컬을 비롯하여 여러 곡으로 준비되는 찬양의 시간을 친구들과 부모님을 초청한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린다. 또한 전도의 시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많은 성도들의 관람과 격려를 기대한다.

9월중 행사

- 9월1일(주) : 새가족 환영회 · 교육위원회
- 9월2일(월) : 22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 9월2일~5일 : 서울성경대학(9월2일), 주부대학(9월3일), 솔름 경로대학(9월5일) 개강
- 9월3일(화) : 강남노회 총대모임
- 9월6일(금) : 찬양대 세미나
- 9월15일(주) : 전도위원회 · 교구찬양
- 9월29일(주) : 대학부 헌신예배 · 찬양위원회

이시아서 강해

# 여호와의 심판

## (이사야 66장 15 - 17절)



이중운 목사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내립니다. 이 같은 심판이 있는 후 새 예루살렘에 세계만민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결론(19-21장)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 1.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니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15절).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출 19:18),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출 13:21), 불같은 영광으로 성막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출 40:34) 등 불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 (1) 불 가운데 여호와의 강림은 심판의 주를 말한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시 50:3). 하나님은 모든 악을 삼켜버리는 불로 임재 하십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합 3:5).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데도다"(시 97:3).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살후 1:7,8).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 3:7).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역사 하시고 불로서 심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 악인들을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고 했습니다(마 3:12, 마 25:41). 그런데 이 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결코 죽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 이것은 영벌을 말합니다(막 9:48). 뿐만 아니라 수치는 영원히 계속 되고(단 12:2), 결박도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유 6:7절).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며(계 14:9-11), 지옥은 불 또는 불꽃의 장소이며(사 33:14, 66:24)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인 것과 동시에 그곳은 어둠의 장소입니다(마 18:12, 유 13절). 누가복음 16:19-31에서 부자는 불꽃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 후면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대화재가 일어나 하늘과 땅이 불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새우주가 생기기 위한 영광스런 갱신이며 완전한 조화입니다.

#### (2) 하나님이 타고 오시는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다

수레는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연 및 초자연적 도구들을 말하는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수레가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라는 것은 심판이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오심을 의미합니다. 수레들은 하늘의 군사를, 회오리바람은 불같은 불가항력적 위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율법에 붙잡히지 않아도 율법 이상의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답답하고 웅졸해 보일지 모르나 본인은 그처럼 기쁜 삶이 없습니다.

연적 도구들을 말하는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수레가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라는 것은 심판이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오심을 의미합니다. 수레들은 하늘의 군사를, 회오리바람은 불같은 불가항력적 위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강한 위세로 나타나시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의 원수들, 곧 교회의 적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 (3) 불, 회오리바람, 칼, 화염 등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만 사후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 2. 심판의 도구는 불과 같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16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사 27:1).

'여호와의 칼'은 모세의 노래에서 '번쩍이는 칼'(신 21:41)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능력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피 곧 어린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사 34:6). 이것은 여호와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격멸하였다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계 19:15),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블리더라"(계 19:21),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7).

이와 같이 여호와와 칼에 죽임을 당할 자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의 입, 곧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법은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절대 불변합니다.

### 3. 우상숭배자, 외식하는 자, 율법을 어긴 자들은 망할 것이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17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며 거룩이 구별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자는 의식을 주관하는 성직자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끼질하는 것은 먹되 새끼질은 하지 말고 갈라지지 아니한 낙타나 토끼 같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두더지와 쥐와 도마뱀은 부정하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파괴시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율법에 붙잡히지 않아도 율법 이상의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답답하고 웅졸해 보일지 모르나 본인은 그처럼 기쁜 삶이 없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한 식물을 먹으면서도 거룩한 채 하고 외식의 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블리더라"(계 19:11-21).

위의 말씀과 또한 이사야 65장 3-9절 말씀은 이사야 66장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련하여 쥐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미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칼로 심판의 도구를 삼으시고 우상숭배자와 외식자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ALCOE V 선언문 복음을 위한 동역 21세기 아시아의 로잔운동

ALCOE V 대회 마지막날인 8월29일(목) 오전 7시 기자회견시 발표된 선언문 전문을 번역하여 기재한다.

제 5차 전도를 위한 아시아 교회지도자 회의(ALCOE V; the Fif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는 로잔대회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 2차 로잔대회의 비전을 아시아에서 이루기 위해 계속되는 운동의 한 부분이며 이전에 열렸던 4번의 ALCOE 회의들에서 진행된 일들을 확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1. 서론

20개 국가에서 온 125명의 ALCOE V 참석자 우리는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인해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라고 부르신다. 따라서 21세기가 시작하는 이때에 아시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충성되고 열매맺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 회의를 주최한 한국 로잔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서울교회의 교역자들과 교인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들의 헌신은 본 회의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이번 회의가 열린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교회성장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 지난 일세기 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싶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국교회와 계속 함께 계시어서 다른 민족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한다.

## 2. 21세기의 선교 상황

기독교 선교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변화하는 아시아의 추세를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상황(context)에서 더 잘 알아야만 한다. 세계화는 전세계를 아시아인들 곁으로 모아주고 있다. 현대 통신기술은 전세계 인류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각 국가의 교회들과 아시아의 종족들은 효과적이고 충실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도시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았다. 기독교회는 복음표현의 정신으로 경제적, 사회정치적, 환경적 문제들을 책임질 필요

가 있다. 아시아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효과적이려면 복음은 전인적 필요를 충족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은 세계적으로 민족간, 종교간 긴장이 심하게 고조되었고 아시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보스니아의 코소보 전쟁, 호전적 힌두교도들로 인해 증가되는 인디아의 긴장, 9.11 사건과 이슬람 국가들에서의 소수민족 핍박은 수많은 문제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술라웨시(Sulawesi)와 같이 기독교 교회의 생존 자체가 위협되는 상황도 있다.

라오스와 북한 같은 국가에서는 독재주의로 인해 교회에 심한 제한과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알기 위해 교회는 지혜와 기도가 필요하다.

## 3.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

선교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과업 달성에 필요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들을 주셨음을 인식한다. 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 I.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인간적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해하는데 면밀한 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II.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예, 과거의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을 모델로 삼아 본받아야 한다.
- III. 복음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열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 뿐만 아니라 말씀과 행동으로 복음을 표현해야 한다.
- IV. 복잡한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는 선교의 도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협력계획과 시너지를 통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 V. 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본보기와 선교의 헌신, 그리고 아직 세계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이 도전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VI.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문화 속에 깊게 정착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여 같은 공동체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고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VII.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큰 역할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거룩, 진리, 연합, 사랑, 선교의 은사(요한복음 17:13-26)가 항상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 4.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로잔운동에 속한 우리는 깊은 전통을 이어받았다. 1974년의 로잔대회와 1989년 마닐라의 제 2차 로잔대회는 함께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온 세계』(whole world)에 선포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다. 오직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도에 신학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로잔운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인간과 전세계에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우리는 통전적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사랑의 선행, 정의의 실행, 치유와 구원사역에 임하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계속 선포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대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아시아는 세계 영도의 20%가 채 안되지만 세계인구의 60% 정도가 있다. 아시아에는 수 백 개의 민족이 있고 수 천 개의 언어가 있다. 세계 최대의 선교지 4 군데가 아시아에 있다. 불교권(스리랑카부터 일본까지), 힌두교권(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이슬람교권(서아시아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유교권(중국과 한국)이 있다. 전체 인구의 8% 정도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으며 그 수치가 0.2% 정도로 낮은 국가도 있다. 복음에 대한 의미적, 상황적인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수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전도되지 못한 이들을 한 세대 안에 다 전도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말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 거대한 임무를 달성하려면 뜨거운 기도, 최선의 노력, 섬세한 계획,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을 하실 것이다. 아시아와 세계를 힘과 충실함으로 전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 5. 결론

로잔언약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가 힘써 따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적 촉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온 아시아와 세계에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알리는 일에 동역하며 전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이 영광스러운 임무에 헌신코자 한다.

▼ 대회기간중 있었던 성찬예식에 참여하며...



▶ 강의 시간과 새벽기도회에서 자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참가자들.



▲ ▼ Speaker들과(성) 장로교 신학대학을 찾은 참석자들(하)





## ALCOE V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수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아시아 로잔대회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난 29일 오후 7시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 로잔위원회와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ALCOE V는 강사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이 서울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민박을 했는데 민박으로 봉사했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오신 목사님들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어찌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지 손님을 치른다고 건강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무색하다고 한다.

그중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Dr. Sigar Sutoyo Louis를 민박시켰던 K권사님은 자국에서는 만나기도 힘든 분이었는데 직접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고 새벽마다 먼저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계셔서 당황했다고 한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순조롭게 ALCOE V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 미안마 참가자들은 여권을 발급 받는데 6개월이 걸렸고 OO국 참가자들은 셋째 날 새벽 강단에서 소개가 있었지만 자국의 사정상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 강단에 오르지 못해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한편 라오스에서 온 참가자들은 대회도 마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통보를 받아 셋째 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서둘러 귀국 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이었기에 그들의 ALCOE V 참가는 더욱 값진 것이었다.

2개월 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고조된 국가 위상이 지속되고 있는 즈음에 개최된 ALCOE V는 한국의 기독교로 하여금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 하는 사역에 충주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로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대회가 됐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셋째 날 강도가 끝나고 아시아 로잔위원회의 차기 임원을 선출했는데 의장에는 이종운 목사님, 부의장에는 팔레이시아의 화영 목사님이 선정됐다.

허숙 (편집부)



### † 다락방 모임 개강한다 †

8월 한달 더위로 쉬었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다시 모인다. 수요일다락방 모임을 시작으로 새 출발을 하는 다락방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 †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 개강 †

우리 교회 열린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모두 개강한다.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전도학교, 교사 계속교육, 교사양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1인 1과목 이상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 Feedback of ALCOE V

I count it as a great privilege to take part in this conference. The great feeling I have in my heart is the message of Jesus Christ brought together the Indians and Pakistanis as one body in this conference. We have the privilege to share and learn from one another when God is doing his work in our lives and ministries. This is a real partnership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I was deeply moved by the Holy Spirit when Dr. H. G. Underwood presented a paper about the Korean church and its growth.

Seoul Presbyterian Church has the history of 10 years that is not long compare to the other conference venues, but this church is Holy Spirit moving church.

This conference opened my spiritual eyes to look the harvest is plenty in South Asia especially in India. So, I committ myself to God to train many national missionaries for the harvest in India.

Dr. Lee Jong Yun's Bible study all three days morning gave me a great spiritual lesson in my life.

Thank you.

Sincerely in Christ  
Rev. Khiantge Lal Zuala  
Eci, India

### ALCOE V를 되돌아보며

ALCOE V에 참여한 것은 나에게 대단한 기회였습니다. 지금 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큰 기쁨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이 행사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님의 말씀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목회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안에 있는 진정한 파트너쉽이었습니다.

Underwood 박사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장로교회는 다른 로잔대회 개최지와 달리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큰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저로하여금 남아시아, 특히 인도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위해 자국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하나님앞에 다짐했습니다.

3일에 걸친 새벽기도회의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은 내 삶의 큰 영적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Rev. Khiantge Lal Zuala  
주안에서 드림

## 기쁨과 정열과 도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 권중덕 목사(마카오 선교사)

90년 10월 28일 대만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다시 92년 2월 20일 사명의 땅 마카오로 부름을 받은 저는 지금까지 그곳 마카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의 신문에 소개된 대로 마카오는 93%가 중국인으로 도박과 마약이 성행하고 기독교인은 9%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ALCOE V의 초청을 받고 심히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ALCOE V에는 저 외에 4분이 동행했는데 상해인으로 마카오에서 사역하시는 정바울 목사님, 신학교 교장이신 양화은 목사님 부부, 그리고 마카오인 제목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 한국교회를 동경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열리는 ALCOE V에 초청을 받고는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상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은 충격이었고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던 나의 신앙적 어떤 부

분들을 힘치게 흔들여 깨웠습니다. 시간 시간 이어지는 신학자들의 강의는 지금의 나의 사역을 돌아보게 했고, 피차 다른 나라를 위한 뜨거운 기도 시간은 아시아가 복음 안에서 파트너쉽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ALCOE V에 참석한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여러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화교들의 총 회장이신 홍콩의 Kao John Yun Han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중국인을 선교하는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이 기쁨은 저를 오랫동안 힘있게 지속시켜 줄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 있는 분들입니다. ALCOE V가 열리는 동안 쉽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훌륭한 목사님 곁에 훌륭한 성도들이 계셨구나 라는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저에게 짐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쁨의 짐, 복음을 향해 넘쳐나는 정열의 짐, 그리고 이종운 목사님의 강해서 16 권이 그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마카오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9월3일(화) 제87회총회 서울강남노회 총대모임을 소집한다. 이번 학기엔 3일 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연세대 신학 박사과정 강의를 맡는다.

■ 박병수집사, 오은이집사(12교구) 경기도 김포시 장지동 청송마을 현대 홈타운 312/102 전화: 031) 983-5102

### ☞ 금주의 식사제공 : 이영자언사 가정

(자녀의 결혼을 은혜중에 마치고)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22학기 복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2. ALCOE V 대회 참석자들 무사히 귀국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